

# 지역 특화 사업 개발...농어촌 경제 활성화

## 농어촌공사 올 사업 계획 발표

### ICT 물관리·젊은 농업인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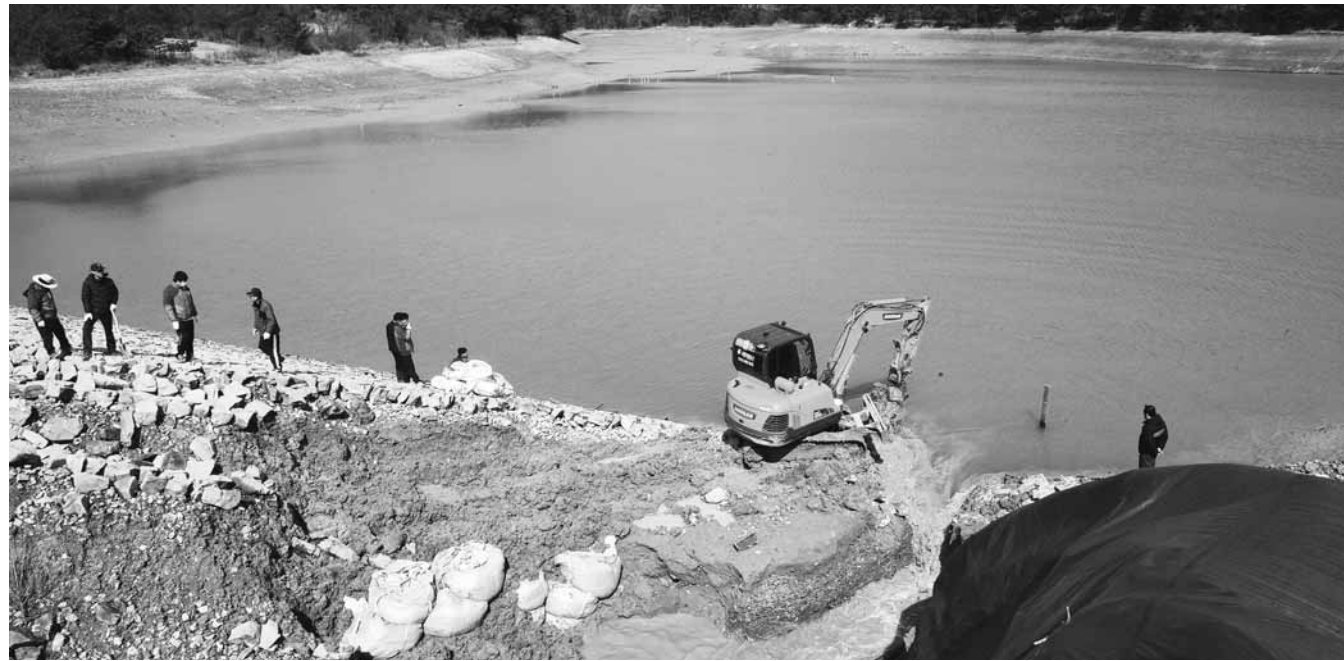
#### 어촌수산개발본부 신설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는 23일 “올해 사업 방향을 기후변화, 지진 등에 선제적 대응과 지역 특화 성공모델 개발 및 신성장사업 육성을 통한 농어촌 경제활성화로 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날 ‘17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기후변화 지진 등에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안전에 직결된 문제 해소 ▲과학적 물관리와 농촌유수 확보를 통해 물 부족 문제 해결 등을 논의했다.

또 젊은 세대 신규창업농 육성을 후계 인력 양성하고 농지연금, 경영회생사업을 통한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지역 성공모델 발굴과 농어촌 신성장사업 육성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 등 4대 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는 국민안전에 위해 노후 시설에 대한 조기 개보수(602지구)를 실시하고 내진 보강 중인 56개 저수지는 2018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상시 안전 점검과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도 정비하고 저수지 붕괴, 배수장 가동 중단 등을 가정한 가상훈련을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오래된 농업기반시설 602지구를 개보수하고 내진 보강 중인 56개 저수지는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안전 점검을 늘리고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또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 재해 영향 취약성 등에 대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물관리를 위해, 자동수위계측, 드론, 계측·영상정보 통합관리 등 ICT를 접목한 물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논 이외에도 밭농사·생물·환경유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유수 종합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농촌유수가 부족한 곳과 남는 곳을 연결하는 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을 통해 물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신규사업모델도 발굴한다. 농지의 다각적 활용방안 모색 등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적극 지원하고 지역개발사업은 경관, 문화 등 다양한 농어촌 자원 발굴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브랜드를 개발한다.

어촌개발을 어촌수산개발본부를 신설

해 기능을 보장하고,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2지구), 유티저수지 자연화(2지구), 간척지의 어업적 활용, 연안정비사업 신규 참여 등을 추진한다. 대단위 간척농지는 기존 논 위주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간척지 개발방향을 전환하여 고품질·수출유치 농산업을 육성 등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을 미래성장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 저수지·공사현장 안전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석균)는 지난 6일부터 오는 3월까지 전남 관내 저수지 1046개소와 시공 중인 공사현장 127지구를 포함한 총 3039개소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국가안전대진단을 한다.

‘2017국가안전대진단’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과 국가 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생활화 및 현장직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이다.

이에 전남본부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토목, 기계, 전기, 건축분야 내부 전문인력 126명과 시공 지자체 46명이 민관 합동으로 44개반으로 나뉘어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반은 농업기반시설과 주변시설 노후화를 진단하고 해빙기 공사현장의 지반 침하, 품질, 안전 준수여부 등을 살핀다.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상 재해위험이 있는 경우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긴급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중국 쇼핑몰에 뜬 한국산 ‘참치 소시지’

### aT, 이달까지 판촉행사

국산 참치로 만든 ‘참치 소시지’가 중국에서 판매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참치소시지’를 중국 영유아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무잉즈가 등 4개 온라인몰에서 최초로 런칭해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홍보판촉행사를 진행한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흰살 생선을 원료로 만든 한국산 어육소시지(현하장사, 뿌리마도르 등)가 중국산 소시지와는 달리 부드러운 식감과 뛰어난 맛을 인정받아 특히 영유아용 간식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어육소시지는 2012년에 처음 34만불이 수출되기 시작해 2015년에 1430만불, 지난해에는 1932만불을 기록하며 연평균 175%의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수출 효과 수산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번에 판촉행사를 통해 중국시장에 처음 소개되는 참치소시지는 기존의 어육소시지 제품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여러 브



중국 온라인 쇼핑몰 무잉즈가 배너 광고.

랜드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OEM제품도 많이 늘어나는 등 시장이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에 흰살 생선 대신 참치어육을 이용해 만든 신개념 제품이다.

이 제품은 aT 상하이지사가 한국 영유아식품 전문 수입업체인 상해장화국제무역유한공사와 국내 참치 1차 가공 전문업체인 ㈜미주물산을 연결하여 중국에서 2

세대 어육소시지 제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발한 전략품목으로 그동안 많은 가공업체들이 참치를 원료로 소시지를 만들려다 실패했던 것을 최초로 완성했다.

판촉행사가 진행되는 온라인 쇼핑몰인 무잉즈는 2003년에 설립된 중국 영유아 전문 온라인 쇼핑몰로서 2009년에 중국 영유아용품 판매 사이트 중 매출 1위를 기록하였으며, 북경, 상해, 광둥, 성도 등 도시에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회원수가 7000만명에 달하는 영유아제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이다.

또한 뒤따른, 탕투안마, 위에추는 알리바바 그룹 산하 쇼핑몰인 타오바오 내 영유아용품 분야 파워셀러 매장들이다.

aT 백진식 식품수출이사는 “그동안 거듭 시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웠던 참치소시지 제품 개발이 성공해 2세대 어육소시지로 대중국 영유아식품 시장개척을 진행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면서 “이번에 중국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홍보판촉 행사를 계기로 참치소시지가 중국 내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중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수상태양광, 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으로

### 한전·수자원공사 개발 협력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상태양광 개발을 추진한다.

한전과 수자원공사는 23일 경기도 과천시 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국의 댐 수면에 수상태양광을 개발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수상태양광은 육상태양광보다 설치비용이 많이 들지만,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다가 넓은 유티 수면을 활용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수면의 뛰어난 냉각 효과로 육상태양광보다 약 10% 이상 발전 효율이 높다. 양사는 수상태양광 개발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수상태양광 개발

사업을 위한 공동 투자 자원 조성, 수상태양광 개발 확대를 위한 계통연계 설비 구축, 수상태양광 관련 기술 교류 등 구체적인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자원공사가 진행 중인 40MW 규모 합천댐 수상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협력을 논의하고, 앞으로 사업여건이 유리한 곳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댐과 하천시설이 건장한 물 공급을 넘어서 청정에너지까지 공급하는 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상태양광 개발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으로써 미래 먹거리를 지속해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 한전KPS, 중소기업 제품 구매 87%로 확대

발전설비 전문 정비회사인 한전KPS(사장 정의현)가 2017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총 구매액의 87%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도 전체 구매액의 83%에 해당하는 3179억 원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했던 한전KPS는 올해 중소기업 구매목표 확대는 물론 사회적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 기업의 공공구매 제품

대에서도 목표치를 상향 설정했다.

또 한전KPS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상담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조달청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조달업체 조달청 3차 합동간담회를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과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확대에도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2t 어선 소유자도 제한무선통신 자격 필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서석진·이하 KCA)은 소형어선의 초단파대 무선설비(VHF-DSC·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5t에서 2t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취득이 필수가 됐다

제한무선통신사는 전파법에 따른 국가 자격으로 KCA에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전파법규 3시간, 무선설비 취급방법 4시간, 통신보안 1시간 등 총 8시간 교육을 이수 해야하며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이 발급된다.

KCA는 자격 취득자의 조난통신 실

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VHF-DSC 실습 기자재를 활용한 현장형 교육을 하고 있다.

KCA 관계자는 “영세어민들이 제한무선통신사 자격 취득을 통해 전파법 준수뿐만 아니라 올바른 통신장비 사용법을 익혀 해양사고 예방과 비상시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KCA는 자격취득 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기교육뿐 아니라 특별교육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일정 및 접수방법은 KCA 자격검정 홈페이지(www.cq.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인터넷진흥원 박민정 연구원

### 아·태 도메인협의체 이사 선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박민정 책임연구원이 아·태지역국가도메인협의체(APTLD) 이사로 선출됐다.

APTLD는 아태지역 국가 도메인 관리기관 간 협력을 위해 1998년 설립된

비영리기구로, KISA를 포함한 39개 기관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회원국 대표단 선거를 통해 선출된 박민정 선임 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메디컬센터 | 분양 및 임대

순창터미널 맞은편

1층 | 약국, 제과점, 편의점 기타

2층 | 내과, 검진센터

3층 | 안과, 피부·비뇨기과

4층 | 치과, 이비인후과

5층 | 정형외과, 한방의학과

6층 | 물리치료실

대지면적 : 1,057㎡ 지상6층, 주차장 27대

● 1층 : 101호 129.5㎡(구 39평), 102호 137.6㎡(구 41평), 103호 83.4㎡(구 25평), 104호 129.5㎡(구 39평)

● 2층 : 201호 240㎡(구 72평), 202호 240㎡(구 72평)

● 3층 ~ 6층 : 2층과 동일

주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3-5번지

(주)우원

(063) 653-7806

(주)태우종합건설

010-4922-3317

분양문의

## 문인의 산실 생오지

### '문예창작대학' 2017년 수강생모집

2016년 신춘문예 등 6명 등단 | 전국적인 문인산실로 '발돋움'

재단법인 생오지문예창작촌(이사장 문순태) 부설 문예창작대학에서는 2017년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년제로 운영되는 생오지 문예창작대학은 매학기 12강좌를 개설해 실기 위주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국문단의 중견 작가를 강사로 초빙,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문인들을 양성합니다.

전국적인 문인산실로 널리 알려진 생오지문예창작촌은 2016년 신춘문예와 문예지 신인 문학상을 통해 6명의 신인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정미경이 세계일보 세계문학상 장편소설 공모에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생오지문예창작촌에서는 2007년 <생오지 문학의집> 개설 이후 2016년까지 모두 35명이 등단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강생 모집요강**

1. 과목 인원 강의시간
  - 시창작반 30명 토요일 오전 10~12시
  - 소설창작반 30명 토요일 오후 2~4시
  - 소설등단반 15명 격주 토요일 오후 2시
  - 기초 글쓰기반 30명 토요일 오전 10~12시
2. 강의기간 : 1학기 3월 11일 ~ 6월 10일 / 2학기 9월 9일 ~ 12월 9일
3. 등록마감 : 3월 5일
4. 등록 및 수강신청
  - 문의전화 : 010-2441-4830
  - E-MAIL : jyc910106@naver.com
  - \*소설등단반은 단편 1편을 이메일로 접수, 심사 후 수강신청 가능
5. 개강 및 특강 : 3월 11일 (토) 오후 2시
6. 강의 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현변차로 338번길 7 광주문화재단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이메일 혹은 카페 '생오지문예창작촌'을 클릭하세요

(재) 생오지문예창작촌 부설 문예창작대학